

# 한국어 구어의 감탄문 표현\*

홍종선(고려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3.2. 한국어 구어에서의 감탄문 표현 |
| 2. 문장의 유형과 감탄문     | 4. 구어 감탄문 표현의 운율 특징   |
| 3. 한국어의 감탄문        | 5. 마무리                |
| 3.1. 국어 문법서에서의 감탄문 |                       |

## 1. 머리말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문장 표현들을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로 화자/필자(이하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문장을 나누기도 한다. 이를 문말 서법이라고도 하고 종결법 또는 결어법으로 처리하기도 하며, 문장의 종류로 언급하기도 한다. 이들은 화자가 청자/독자(이하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에 근거하는

\*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1019175)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분류된 항목으로서 ‘감탄문’에 관하여 그 실현 양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나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서문과 구별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 평서문과 다른 여러 면이 있어서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탄문 또는 감탄형을 언급할 때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저에서는 형태론적인 고유 어미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언어생활과 매우 거리가 있어 실제의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감탄문의 설정 문제를 검토하고 감탄문이 가지는 언어적인 특성을 고찰하는데, 감탄문이 문어에 비해 구어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므로 구어를 위주로 논의하기로 한다. 준구어 자료인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감탄문 표현들을 조사하여 실제 감탄문이 사용되는 양상을 살피고, 감탄문이 실현되는 음성적인 특성을 고찰한다.

## 2. 문장의 유형과 감탄문

한국어 문장들을 유형별로 나누는 문제에서 지금까지의 논저에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현배(1937, 1971)에서는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누었고, 김민수(1971)에서는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을 들었다. 그러나 이희승(1970), 김민수(1979), 등 학교 문법서에서는 모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응낙문’을 들었다. 오늘날 학교 문법의 기본이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6, 2002)에서는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남기심·고영근(1985, 1993: 342-356)과 같다. 서정수(1994: 250)에서는 문말 서법이라 하여 ‘서술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을 들었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종결 어미

의 결어법에 따라 ‘평서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으로 세분하였다. 임동훈(2011)은 ‘간접인용절에도 나타날 수 있느냐’와 높임법으로 ‘세 화계에 두루 나타나느냐’를 근거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문장 유형을 설정하였다. 학교 문법론 관점에서 이관규(2016)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누고 있다.

영어 등 외국어에서도 문장의 유형을 분류하여, Jespersen(1924)이나 Lyons(1981)에서는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을, Curme(1924)에서는 ‘서술문, 의문문, 감탄문’을 들었다. 이들 모두가 감탄문을 문장의 중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이후에도 대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어에서 들고 있는 문장의 유형 분류는 대개가 문장 종결 어미의 기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세분화의 정도에 따라 유형 목록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세분화하는 기준도 분별 인식이 그리 뚜렷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명시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근거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설명력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sup>1)</sup> 이러한 분류가 설명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언어적 수행에서 각 목록들이 서로 달리 실현되는 문법 현상을 발견하는 등 변별 요인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지 아니하고 감탄문의 설정에 관해서만 살피기로 한다. 앞서 보았듯이 특히 감탄문은 논저에 따라서 문장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는 데에 견해 차이가 크게 있다.<sup>2)</sup>

감탄문의 다양한 문법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로는 노대규(1997)

- 1) 가령 ‘-어’나 ‘-다’로도 얼마든지 감탄문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는 외면하고 ‘-구나, -도다’ 등과 같이 이른바 ‘전형적인 감탄형 어미’만을 들고 있다. 이는 실제적인 언어 수행 장면을 설명하기 어렵다.
- 2) 익명의 심사자는 ‘문장 유형과 발화 수반력은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문장의 유형은 발화 수반력에 의해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태에 따라 나뉘는 ‘문장 유형’은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성이 너무나 적다. 결과적으로 그 발화가 수행하는 기능이 곧 문장의 유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탄문만 억양에 의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한다.

가 유일하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감탄문의 특성을 7가지로 말하였는데, ‘-구나, -군’ 등 독자적인 종결 접미 형태, 서술문과 다른 음조, 독자적인 청자 대우 체계, 서술문과 다른 비동일 주어 제약, 직접 화법만 있는 점, 시인소적 제약 및 시처소적 제약, 지각 제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외에 감탄문에는 몇 가지 특성이 더 있다. 감탄문은 주어의 인칭과 관계없이 항상 화자의 느낌을 주관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평서문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거나 가부를 판단하는 표현인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평서문에서는 주관적인 느낌도 객관화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또 감탄문은 하나의 감탄사만으로도 성분 생략이 없이 하나의 문장을 이룰 수 있다. ‘아, 얼씨구, 그래’ 등이 각각 하나만으로 문장을 이룰 때 다른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기저 구조를 상정하여도) 그것만으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품사는 감탄사밖엔 없다. 이와 관련을 갖기도 하지만 감탄문은 대체로 짧고 통사 구조도 간단한 편이다. 또한 감탄형으로만 쓰이는 종결 어미들은 다른 문장 유형과 다른 독자적인 상대 높임법 체계를 가져, 서술어의 종결형에 ‘-요’를 접미하는 높임 표현(예: ‘-군요, -네요’ 등)만이 있든가 아예 상대 높임 형태가 없다(예: ‘-구나, -도다, -어라’ 등).

이처럼 위와 같은 여러 문법적 사실을 근거로 감탄문은 평서문과 달리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설정될 만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평서문과는 다른 독자적인 종결 어미가 있으며, 다른 문장 유형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억양을 가지므로 이를 평서문과 구별해야 할 것이다. 청자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평서문과 같다고 해서 이 둘을 하나로 보기에는 그 차별성이 너무 크다. 독자적인 억양 문제는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 3. 한국어의 감탄문

#### 3.1. 국어 문법서에서의 감탄문

감탄문을 설정하고 있는 한국어 문법서에서는 감탄문을 ‘화자가 어떤 감동을 곧장 드러내는 양식의 문’(김민수 1971: 295)이라고 하거나,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유형’(남기심·고영근 1993: 34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6: 84)으로 설명하였다. 감탄문이, 화자가 자신의 느낌을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올바른 언급이라고 하기 어렵다.

- (1) ㄱ. 이 꽃은 참 예쁘군.  
 ㄴ. 이 꽃은 참 예쁘네.  
 ㄷ. 이 꽃은 참 예쁘구나.  
 (2) ㄱ. 이 꽃은 참 예쁘군요/예쁘네요.  
 ㄴ. 이 꽃은 참 예쁘구려.

(1)의 감탄문들은 모두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하는 상황에서 발화할 수 있지만, 또한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고 청자에게 화자의 느낌을 전달하는 언어 행위의 일반적인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더구나 (2)의 감탄문들을 반드시 청자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표현이다. ‘-요’를 접미하여 높임법을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청자를 전제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감탄문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하는 상황’에서도 곧잘 발화할 수 있을 뿐으로, 이는 명령문이나 청유문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인 평서문에서도 가능하므로 이를 감탄문만의 특징이나 정의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탄문으로만 쓰이는 종결 어미들도 있다. 감탄문 종결 어미로 최현배(1937)에선 ‘-구나, -도다, -구려’를 들었다. 남기심·고영근(1993: 347-348)에서는 ‘-구나, 구먼, 구려, -군, -군요, -어, -어라’를 들고, 윤석민(2000)은 여기에 합성형으로 ‘-르걸, -노라’를 더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08: 429-430)에서는 전형적인 감탄형 어미로 ‘-구나, -구먼, -구려, -군, -네’를,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관규(2016: 274)에서는 ‘-구나, -군(요), -구먼(요), -구려, -어라/아라, -누나, -노라, -도다’를 들었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6: 84)에서는 ‘-군, -구나, -어라’로 끝나는 예문을 보이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군(요), -구나, -네(요), -는데(요), -는걸(요), -어라, -구먼(요)/구만(요), -구려’ 표현을 보였다. 노대규(1997: 81)에서는 감탄문 종결 접미 형태에 ‘-구나, -군, -군요, -구먼, -구먼요, -구려, -아라, -누나, -도다’라는 아홉 개를 들었다. 이들 어미는 대부분이 주로 감탄문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상당수는 평서문 등 그렇지 않은 문장에서도 종종 쓰일 수 있다.

노대규(1997)에서는 한국어의 감탄문을 둘로 나누어, 문장이 이른바 감탄형 종결 어미로 끝나거나 감탄 보문이 들어있는 (3)을 ‘순수 감탄문’으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만 감탄적 음조가 없힌 (4)를 ‘의사 감탄문’으로 보았다.

- (3) ㄱ. 날씨가 참 좋구나!  
       ㄴ. 얼마나 다리가 날씬한지, 놀라워.  
 (4) 기분 참 좋다.

그러나 이는 언어 수행 현실을 도외시한 해석이다. 감탄의 정도에서 (4)가 (3)보다 훨씬 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4)를 의사 감탄문으로 본 것은 언어 수행을 거의 문어에 의존한 때문이다. 문어에서는 앞뒤의 문맥이 없이 (4)가 감탄문이라고 하는 해석을 내리기 어렵고 간혹 문맥을 통해 (4)가 감탄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따름이지만, 이러한 해석상 어려움이 곧 (4)를 의사 감탄문이라 이름짓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문맥에 의해서도 감탄문임을

알기 어렵다면 그저 판단을 내리지 못할 뿐이다. 문맥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음성 언어로 인지하든 (4)가 감탄문으로서의 조건을 갖는다면 표현 (4) 역시 (3)에 못지않은 ‘순수 감탄문’이 된다. 즉 감탄문이 이른바 감탄형 종결 어미에 의해서 주로(또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주로 감탄법으로 쓰이는 종결 어미에 의한 감탄문이 순수한 감탄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사 감탄문’이라면 차라리 감탄의 정도가 약하여 사람에 따라 감탄문이라고 판정하기에 주저되는 정도의 감탄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 낫다.

그럼 감탄문의 조건은 무엇인가? 언어 수행에서 언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감탄문의 결정적인 조건은 감탄적 어조(억양)이다. 어떠한 형태로 문장이 이루어지더라도 감탄적 어조를 갖는다면 감탄문으로 인식하며, 감탄적 어조를 갖지 아니하면 어떠한 문말 형태로 끝나더라도 감탄문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변별이 구어에서는 음성 발화를 통해 쉽게 이루어지며, 문어에서는 어말 형태나 문맥을 통해 추정된다. 각 문법서에서는 감탄문의 설정을 대부분 문말 어미 등 형태나 통사적인 표지로써 판별하려고 하지만 실제의 구어 현장에서는 운율적 특징으로 감탄문을 발화하고 인지하는 것이다.

- (5) ㄱ. 배가 너무나 아프구나!  
 ㄴ. 배가 너무나 아프다.  
 ㄷ. 배가 얼마나 아플까?

(5ㄱ)은 감탄문, (5ㄴ)은 평서문, (5ㄷ)은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문장에 대해 다른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의 문어에서 가능한 해석이다.<sup>3)</sup> 이는 주로 문말 종결 어미에 의하며, 그런 점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언어 수행 현장에서 구어로 발화될 때에는 세

3) 예문 (5)의 세 문장에서 문말에 표기된 느낌표나 마침표 및 물음표는 이들 문장이 어떠한 유형인지가 결정된 후에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문장의 유형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문장 모두 충분히 감탄문이 될 수도 있다. 그건 감탄문이 갖는 독자적인 억양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법서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문법서들이 문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서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실제 구어에서의 언어 실현 양상이 서술되어야 한다.<sup>4)</sup> 이는 문자 언어에 비해 음성 언어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법서에서는 감탄형으로만 해석되는 고유한 어말 어미만으로 감탄문을 설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현실 언어 장면에서는 이들 고유한 감탄형 종결 어미보다는 다른 종결 어미로 감탄 표현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를 외면한 것이다.

하지만 감탄형 종결 어미가 아닌 다른 종결어미로 나타난다든가 용언이 아닌 명사나 부사 등 다른 말로 문장을 끝맺을 때에는 그것이 감탄문인지 판별이 그렇게 쉽지 않다. 감탄의 어조는 정도성에서 차이가 많고 범위 설정이 너무나 다양하여 그것이 평서문 등 다른 문장 종결인지 분간하는 기준점 부근에 놓일 때에는 가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우며, 사람에 따라서 감탄문이라는 인식의 범위도 다른 것이다. 더구나 감탄형 종결 어미로 끝나는 문장 역시 감탄문이 아닌 경우도 있다.<sup>5)</sup>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는 작업을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 3.2. 한국어 구어에서의 감탄문 표현

여기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감탄문 표현을 살핀다. 문어에서는 감탄 표현도 매우 적고 감탄문의 판별도 뚜렷하지 않아 구어 자료에서 감탄 표현 양상을 조사하기로 한다. 자연 발화의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4) 그러나 문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감탄형 종결 어미 형태가 아니면서 담화상 감탄 기능을 하는 표현이 문어에서도 파악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언급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5) 이와 같이 감탄문 판별의 기준점이 화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감탄의 정도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감탄문'의 범주 설정 자체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이나 아직 음성 한국어의 균형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구축된 음성 언어 말뭉치에서는 감탄 표현의 일반성을 찾기가 어렵다.<sup>6)</sup> 발화 장면이나 조건에 따라서 감탄 표현의 양상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드라마의 음성 발화문 중에 나타나는 감탄문을 조사한다. 드라마는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내용과 장면 및 대화문이 연출되는 것이지만, 드라마가 내용이나 표현 등에서 현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현실 언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발화되는 표현들이 각각 그 자체로서는 현실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주로 가정이나 회사 등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는 드라마를 위주로 선정하되 제2회차만을 선택하였다. 제1회차는 첫 도입부이므로 대화 내용이나 형식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조사 드라마의 목록은 아래 (6)과 같다.

#### (6) 조사 드라마 목록

제목	방영 시기	방송사	내용 및 성격	비고
대물	2010.10.	SBS	사회·정치 드라마	
불굴의 며느리	2011.06.	MBC	가정·여성 드라마	
내 딸 서영이	2012.09.	KBS2	가정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2015.07.	tvN	애정 드라마	
W	2016.07.	MBC	애정 드라마	

위의 드라마에서 지문은 제외하고 등장인물들의 대화만을 조사하였는데, 동영상에서의 음성 발화 청취를 위주로 하되 느낌의 정도나 감탄문 등을 판정할 때에 작가의 대본(스크립트)도 참고하였다. 감탄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6) 음성 언어 말뭉치가 아니라 문자로 기록하되 '구어'라고 명명한 말뭉치가 있기는 하다. 한 예로 이미지(2014: 243)에서 보면, 805,606 어절의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 감탄 표현 가운데 '-어라'형이 0으로 나타났다. '-어라'는 '-네, -다, -어'와 함께 감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인데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구어 말뭉치가 현실의 구어 즉 음성 언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 현실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실제로 쉽지 않다. 감탄의 정도에 따라 어디까지를 감탄문으로 판정하는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어학을 전공한 박사 학위자 1명의 보조를 받아 각 발화문의 감탄문 여부 판정에서 의견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등으로 판정에 신뢰성을 다소 높이었다.

각 드라마에서 감탄문으로 표현된 발화로 판정하는 근거로 해당 작가의 대본을 들 수도 있다. 대본에서 발화 단위 끝에 느낌표를 쓴 표현들을 일단 감탄문의 후보로 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각 대본에서 느낌표를 단 발화문을 출현 빈도가 높은 어말 형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 느낌표 표시 발화문의 어말 형태 빈도

	대물	불굴의 머느리	내 딸 서영이	오 나의 귀신님	W
-고/구	13			4	2
-고요/구요	1		1	3	1
-네	2	7		1	
-다	11	1	5	4	1
-어(라)	10	16	12	8	3
-어(라)(명령형)	9		8	5	4
-어요	6	5	4	3	8
-지	2	2	5	2	3
명사	13	5	30	19	6
부사	5	5	7	18	3
명사(부름)	3	3	7	11	4
기타	17	7	4	3	13

위의 표 (7)을 보면, 작가에 따라 선호하는 느낌/감탄 표현 방식이 다르고 작품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어말 형태의 사용 빈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흔히 문법서에서 제시한 감탄형 어말 어미는 별로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실제의 언어 현실을 정확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가들의 언어 감각으로도 기존 문법서에서 나열한 이른바 감탄형 종결 어미가 실제 일상생활의 감탄문에서 그다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

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만 위의 대본들에서 감탄문이면서 느낌표를 쓰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 자료가 작가가 의도적으로 쓴 대본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의 생활 현장에서는 용언의 어미가 아닌 다른 품사나 형태로 감탄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위의 드라마에서 실제로 감탄문으로 쓰인 표현들의 빈도는 여기에서 들지 않는다. 화자나 청자에 따라 감탄문 여부 판정에 차이가 크고 감탄의 정도에서도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위의 느낌표가 표시된 발화의 대략 1/4 정도가 실제 감탄문으로 보인다. 드라마 대본에서는 출연자에게 (감탄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감탄의 느낌을 넣어 연기하며 발성하도록 느낌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위 드라마에서 보인 감탄 표현들의 예를 아래에 몇 가지 들어 본다.

- (8) ㄱ. 아까 봤지! 봤지! 저 쌤, 멘탈 정상 아닌 거! 완전 또라이야!  
     〈내 딸 서영이〉  
 ㄴ. 어머, 완전 신기하다! 〈오 나의 귀신님〉  
 ㄷ. 혜자! 분명히 혜자 맞아! 〈불굴의 며느리〉  
 ㄹ. 이 여자가 증말! 〈대물〉  
 ㄴ. 전 봤어요, 피가 뜨겁고 심장이 뛰는 걸!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W〉  
 ㅂ. 너 땀에 내가 진짜 고생 좀 했거든! 〈대물〉  
 ㅅ. 만월당은 여전하구나! 〈불굴의 며느리〉

(8)에서 보듯이 실제 감탄 표현은 (8ㅅ)을 제외하고는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앞의 3.1장에서 든 한국어 문법서에는 전형적인 감탄형 종결 어미라고 하는 목록이 있는데, 이들 목록 가운데 위의 5편 전체 드라마에서 출현한 형태의 총빈도는 ‘-구나’ 2번, ‘-아라’ 2번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구어에서의 감탄문 표현은 고정된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가 너무나 적다. 또한 감탄문 종결 어미라고 하더라도 감탄문이 아닌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 (9) ㄱ. 못 보던 아저씨네? 이사 왔어요? <내 딸 서영이>  
 ㄴ. 음-, 이제야 속이 좀 가라앉네. <불굴의 며느리>  
 ㄷ. 그 사람이 떠났군요?

(9)에 있는 ‘-네’나 ‘-군요’는 앞의 문법서에서 전형적인 감탄형 종결 어미로 든 형태들이다. ‘-네, -군요’는 감탄문에서 종결형으로 잘 쓰일 수 있지만 (9)에서는 모두 의문문이나 평서문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거의 모두가 이들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음성의 운율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법서에서 감탄문을 설명할 때에 ‘감탄형 어미로 실현되는 문장 형태’라는 식으로 끝내는 것은 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감탄 어조에 의한 것임을 언급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감탄문을 문장의 종결법 유형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을까? 종결법을 형태론적인 측면만 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종결법의 구분이 현재 다분히 종결 어미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종결 어미 형태만이 곧 종결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종결법 설정에는 이 외에도 음운론적인 변별성이 도입되어야 한다. 가령 ‘-어’가 억양 실현에 따라 평서, 의문, 명령 등 여러 가지 종결법으로 쓰이며, 그 때마다 각기 다른 종결형으로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구어에서 감탄문은 감탄의 어조를 갖는 표현인 것이다. 이제 어떠한 표현이 감탄문으로 인식되는 근거, 즉 구어에서 감탄문이 갖는 운율적 특성을 다른 문장 유형들과 비교하며 설명하기로 한다.

#### 4. 구어 감탄문 표현의 운율 특징

김민수(1971: 295)에서는 한국어 감탄문은 ‘보통 /241\형의 어조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감탄문을 본격적으로 고찰한 노대규(1997: 73-74)에서도 한국어에서 ‘말할이의 정서나 감정이 특별히 강조되지 않은 서술문에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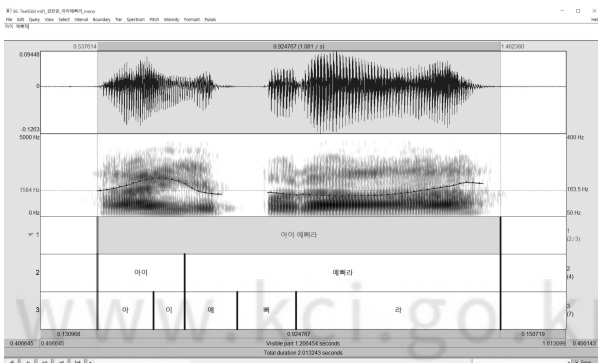
음도는 /221/이지만, ‘감탄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음도가 /231/이나 또는 감탄의 정도에 따라서 /241/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음도 /3/이나 /4/는 서술법 문장 종결 접미 형태 위에 얹힌다’고 하였다.

- (10) <sup>2</sup>오늘 <sup>2</sup>날씨가 <sup>2</sup>좋다1\
- (11) <sup>2</sup>오늘 <sup>2</sup>날씨가 <sup>2</sup>좋<sup>3</sup>다1→\
- (12) ㄱ. <sup>2</sup>오늘 <sup>2</sup>날씨가 <sup>2</sup>좋<sup>2</sup>구<sup>3</sup>나1→\!
- ㄴ. <sup>4</sup>이크1→! <sup>2</sup>여기 <sup>2</sup>뱀이 <sup>2</sup>있<sup>2</sup>구<sup>4</sup>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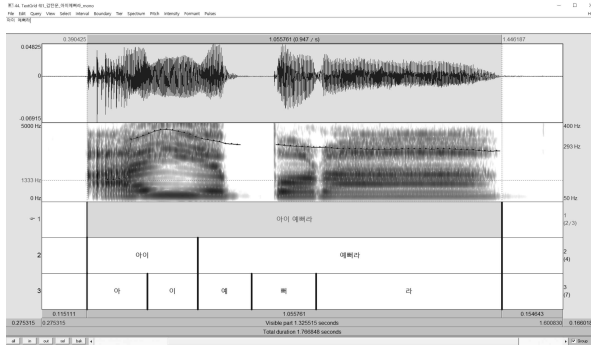
(10)~(12)은 노대규(1997)에서 설명한 서술문과 감탄문의 음조 표기이다. 평서문인 (10)에 비해 형태는 같지만 감탄 음조를 가진 ‘의사 감탄문’ (11)은 문말 억양이 ‘2-1’에서 ‘2-3-1’로 바뀌면서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가 부가되었다고 하였다. 그 밖의 다른 ‘순수 감탄문’ (12)는 감탄의 정도에 따라 (12ㄱ)이나 (12ㄴ)의 음도를 보이는데, 모두 어말 장음화를 가지고 있다. 결국 모든 감탄 표현은 문말에 잠깐의 고조에서 저조로 내려가면서 장음화하는 억양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음성학적 실험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제 한국어 구어 감탄문의 발화에 나타나는 억양을 Praat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살펴기로 한다. 감탄문 억양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평서문과 의문문과의 비교를 더불어 한다. 발화자는 30대의 남과 여이다.

(13) ㄱ. 아이 예뻐라!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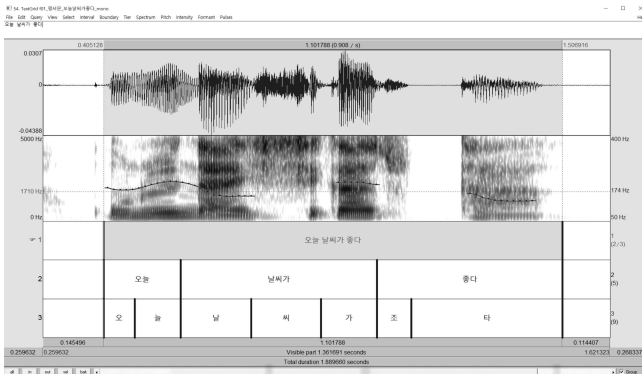


ㄴ. 아이 예뻐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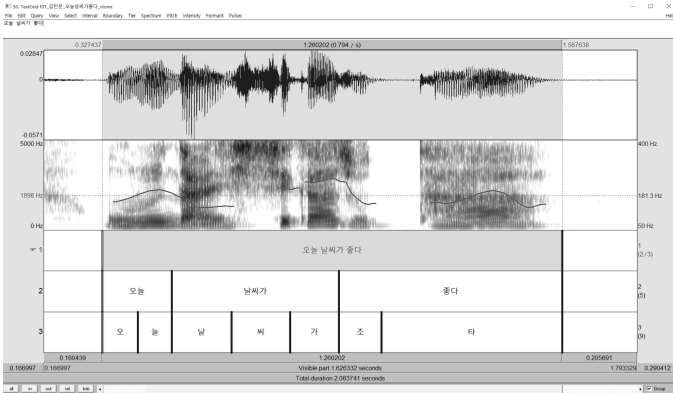


(13ㄱ)과 (13ㄴ)은 30대의 남과 여가 각각 감탄문 ‘아이 예뻐라!’를 발화한 음성의 스펙트로그램이다. 이 두 그림에서 남과 여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는데, 두 그림 모두 (11)과 (12)에서 보인 감탄문 억양 표시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발화 말 음절의 장음화는 있지만 발화 말에 급격히 고조화하였다가 하강하는 높낮이 곡선이 아니라 거의 평조가 지속하는 억양을 보이며, (13ㄱ)에 선 끝이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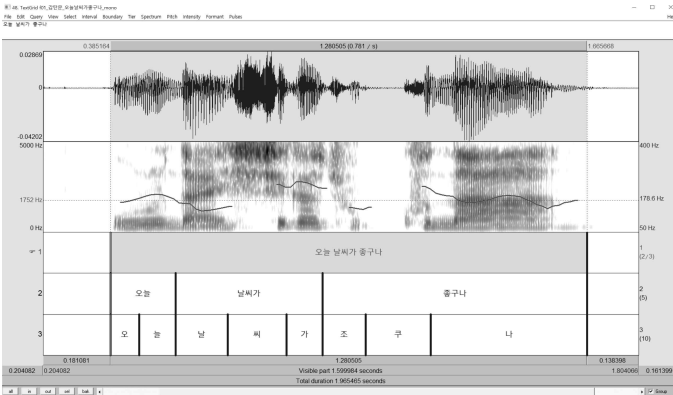
(14)ㄱ. 오늘 날씨가 좋다. (여)



ㄴ. 오늘 날씨가 좋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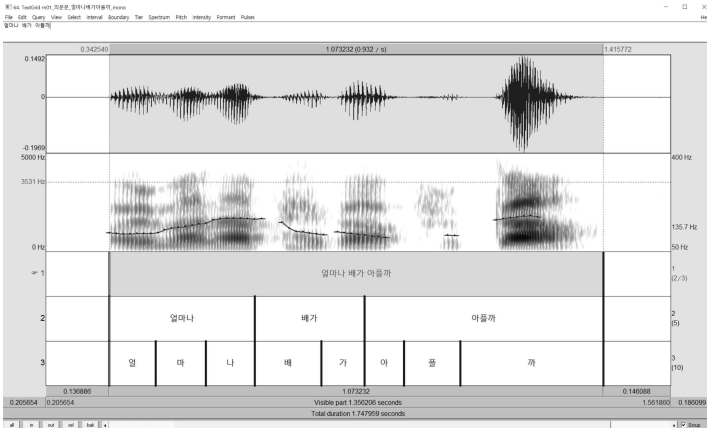
ㄷ. 오늘 날씨가 좋구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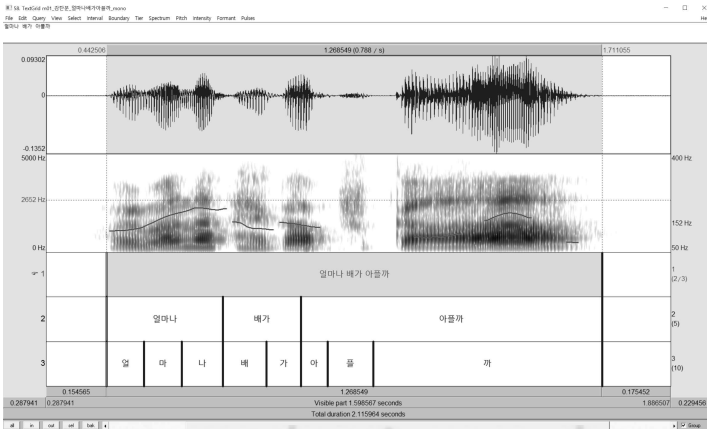
(14ㄱ)은 평서문이고 (14ㄴ)은 감탄문이다. 평서문이 비교적 고저 굴곡이 없는데 비해 감탄문은 고저 높낮이 굴곡이 심하다. 발화 말의 마지막 음절에서도 별다른 고저 굴곡이 없는 평서문에 비해 감탄문은 ‘고-저’의 굴곡이 있다가 다시 약간 높아지는 억양을 보인다. 발화 말 마지막 음절이 평서문에 비해 감탄문에서 장음화하는 현상도 조금 나타난다. (14ㄷ)은 감탄형 종결 어미라고 하는 ‘-구나’형 감탄문이다. 역시 발화 전체에 고저 굴곡이 심하고 발화 말

음절의 장음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로 볼 때 감탄문이 평서문보다 발화 전체에서 고저 굴곡이 심하지만, (11)과 (12)에서 보인 발화 말 음절에서의 저조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15) ㄱ. 얼마나배가아플까? (남)



ㄴ. 얼마나배가아플까? (남)



(15ㄱ)은 의문문이고 (15ㄴ)은 감탄문이다. (15ㄱ)에 비해 (15ㄴ)은 역시 발화 전체에서 높낮이 굴곡이 심하고 발화 말 음절의 장음화가 뚜렷하다. 반면 (15ㄱ)이 발화 말 고조인데 반해 (15ㄴ)은 ‘고-저’ 억양을 보인다. (13), (14ㄴ), (14ㄷ)에서 감탄문들은 발화 말에 약간의 고조화나 평조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5ㄴ)에서는 저조화를 보인다. 감탄문에는 세 가지의 억양이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감탄문 발화가 실현된 양상을 아래의 표에서 비교해 본다.

(16) <표 1> 감탄문의 실현 양상

발화자	문장종류	발화문	발화 전체		발화 말 음절	
			길이 (ms)	음높이 (Hz)	길이 (ms)	음높이 (Hz)
여성	감탄문	아이 예뻐라	1,055	293	473	283
	감탄문	얼마나 배가 아플까	1,393	205	465	153
	감탄문	오늘 날씨가 좋구나	1,281	179	420	175
	감탄문	오늘 날씨가 좋다	1,260	181	495	169
	의문문	얼마나 배가 아플까	1,157	184	287	211
	평서문	오늘 날씨가 좋다	1,101	175	363	138
남성	감탄문	아이 예뻐라	924	164	469	154
	감탄문	얼마나 배가 아플까	1,269	154	586	142
	감탄문	오늘 날씨가 좋구나	1,252	137	496	125
	감탄문	오늘 날씨가 좋다	1,187	148	516	130
	의문문	얼마나 배가 아플까	1,072	136	310	170
	평서문	오늘 날씨가 좋다	1,077	131	320	96

<표 1>을 보면, 감탄문의 발화 말 음높이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아이 예뻐라!’에서처럼 발화 말의 음높이가 발화 전체에 비해서는 낮지만 말음절에 저조화가 아닌 평조가 유지되는 것이다. 둘째, ‘얼마나 배가 아플까!’에서처럼 발화 말의 음높이가 저조화를 보이는 것이다. 셋째, ‘오늘 날씨가 좋구나’와 ‘오늘 날씨가 좋다’에서처럼 발화 말이

고조화하는 유형이다. 이처럼 감탄문의 억양은 하나의 고저 유형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김민수(1971)이나 노대규(1977)에서 언급한 대로 발화 말 음높이가 /231/이나 /241/라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발화 말 음절의 장음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표 1>의 실험 결과는 30대의 남과 여의 발화이다. 50-60대 이상 연령의 화자는 감탄문에서 발화 말에 /231/이나 /241/로 말하는 경우가 좀더 많다. 그렇다면 감탄문의 억양이 세대에 따라 즉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더 많은 발화자를 상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감탄문의 발화 실험을 하고 자연 발화를 채취하여, 개인차나 발화문의 종류 등에 따른 변인 등을 밝혀서 좀더 정확하고 정밀한 내용을 얻어야 할 것이다.

## 5. 마무리

한국어의 감탄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문 구조가 간단하여 형태론적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통사적인 생성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며 담화상에서도 그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에서는 평서문에서 감탄의 느낌을 조금 더하여 표현하는 정도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탄문은 그 나름의 독자적인 특징과 문법적인 절차를 가지므로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감탄의 정도와 범위 등에서 이를 분별하는 명시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가지면서도 독자적인 문법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의 일상적인 구어에서 감탄문은 종전의 이른바 감탄형 종결 어미로 목록화된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필자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발화된 감탄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탄문은 다양한 종결 어미나 연결 어미 또는 다른 품사로 발화가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때 감탄문이라는 인식은 주로 억양에 의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구어의 감탄문은 /231/이나 /241/의 어조만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들은 발화 말 억양이 고조에서 저조로 급격히 떨어지는 음높이를 갖는 것인데, 실제로 감탄문의 발화 말 억양은 '평조, 고조화, 저조화'라는 세 가지 유형을 모두 가진다. 감탄문은 평서문에 비해 발화 전체에서 억양의 움직임이 커서 더 역동적이다. 또한 감탄문은 발화 말 음절과 발화 전체의 음높이가 평서문에 비해 모두 더 높으며, 발화 말 음절의 길어도 더 길다.

이러한 감탄문의 억양은 오늘날 세대에 따라 변화가 감지된다. 이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그 음성적 특징과 변화 추이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욱 다양하게 감탄문을 수집 분석하여 한국어 감탄문이라는 특성과 범위 등을 더 정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문어 감탄문도 폭넓게 조사하여, 구어와 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이들을 다른 문장 유형 즉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과 억양과 형태 등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각 문장 표현의 특성과 범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감탄문, 한국어 구어, 감탄형 종결 어미, 발화 말 억양, 음높이, 음장, 문장 유형

###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남기십·고영근(1985/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노대규(1997), 『한국어의 감탄문』 국학자료원.
- 도원영(2017), 「20세기 전기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감탄사에 대한 어휘론적 고찰」, 『Journal of Korean Culture』 35,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1-26쪽.
- 문보경(2013), 「한국어의 감탄문 연구」, 『한국어의미학』 40, 한국어의미학회, 159-189쪽.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1996/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부/교육 인적자원부.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윤석민(1996),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관규(2016),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역락.
- 이미지(2014), 「한국어 감탄 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25-3,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237-258쪽.
- 이희승(1970), 『새 문법』 일조각.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323-359쪽.
- 전영옥(2009),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감탄사 연구」, 『텍스트언어학』 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45-274쪽.
- 정선주(2007), 「인지 작용 양상에 따른 한국어 감탄 표현 연구」, 『언어와 언어학』 40, 한국의국어대 언어연구소, 105-123쪽.
- 최현배(1937/1971), 『우리 말본』 정음사.
- 하지희·조용준(2016), 「맥락 요인에 따른 감탄문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42, 한말연구학회, 197-227쪽.
- 황병순(2015), 「감탄사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 『한글』 308, 한글학회, 121-157쪽.

Curme, G. O.(1924), *English Grammar*, New York: Barnes & Novels, Inc.

Jespersen, O.(1924),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ge Allen & Unwin

Ltd.

Lyons, J.(1981),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Exclamatory Sentential Expression in Spoken Korean

Hong, Jong-seon

In sentential types in Korean, the 'exclamatory sentence' is under some controversy among scholars with respect to whether it can be classified as an independent sentential type. However, since the exclamatory sentenc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distinguished from the declarative sentence, it can be established as a sentential type in Korean. Although the criteria for categorial division and classification of type for the exclamative sentence are not clearly defined, these facts cannot be the reasons to claim that the exclamative sentence is not an independent sentential type. In fact, Korean exclamatory sentence has not been highlighted much in previous researches.

The exclamatory sentence in spoken Korean is rarely constructed with the sentential endings classified to this date as exclamatory endings. Following the author's analysis of exclamatory sentences used in the dialogue of television dramas, it is revealed that the exclamatory sentence often ends with various final endings and connective endings as well as other parts of speech. For this matter, the main factor governing the hearers' recognition of the exclamatory sentence mainly depends on intonation.

The exclamatory sentence in spoken Korean does not only have the tone of /231/ and /241/ unlike what is claimed in other previous grammar books. In fact, the final intonation of actual utterance is realized with all of three types such as 'flat tone', 'rising tone', and 'falling tone'. Compared to the declarative sentence, the exclamatory sentence is more dynamic in articulation since it has

a greater fluctuation of intonation in utterance. Furthermore, the exclamatory sentence has a higher sound pitch in the final syllable of an utterance and whole utterance compared to the declarative sentence, and also the final syllable of an utterance has a longer sound length in the exclamatory sentence.

**【Key words】** : exclamatory sentence, spoken Korean, exclamatory sentential ending, final intonation of an utterance, sound pitch, sound length, classification of sentence type

---

---

### 홍종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hongjs@korea.ac.kr

---

---

이 논문은 2017년 4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6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1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